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25, 2017 Vol. 579



나성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새생명 전도를 결단하는 전도부흥성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 주소서"

나성순복음교회 전도부흥성회로 헌신 결단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가 세계로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를 초청해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교인 전도부흥성회를 개최했다. 3일간의 집회 동안 성도들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구령 열정을 재확인하고 헌신을 다짐했다.

2004년 6월 12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하면서 개척을 준비한 세계로금란교회는 100일간 철야기도를 하며 부흥을 사모했다.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척되기 전 공원에서 예배드리면서도 30명으로 성장했고 12월 창립 시엔 이미 150명으로 성장해 있었다. 개척 10개월 만에 7백 명을 돌파하더니 2년 만에 2천 명을 넘어서고 2012년 집계로 8천 명을 기록했다. 이 교회의 성장은 정체기에 들어간 한국교회에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다.

이 교회의 성장 비결은 구시대의 유물에 가깝다. 한국교회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된 철야기도,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노방전도가 세계로금란교회의 성장 키워드로, 주성민 목사는 "현재도 주일예배에 매주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백 명 이상의 새신자가 교회를 방문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자 없이 그냥 온 사람이 없다"며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목사는 "우리 교회는 불신자에서 전도된 사람이 95%에 달한다"고 말하며 "청년들 중심으로 급격히 부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성민 목사

한편, 나성순복음교회는 남미 선교사 출신인 진유철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라는 구호 아래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가운데 2017년부터는 미국 내에 10개 교회, 세계 선교지에 10개 교회를 개척 혹은 후원하겠다는 '10·10 미션' 운동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가시적으로도 지난 1년여 동안 이 교회는 한어권 청년부와 30대 젊은 부부들이 2배 가까이 부흥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교회는 이번 부흥회를 아예 전도부흥회로 준비하며, 성장하는 세계로금란교회의 간증을 듣고 전도 및 선교에 더욱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부흥회 직후 주일인 5월 21일 전도를 위한 새생명 전도 작정 카드를 성도들에게 배부했으며 온 교회가 기도에 돌입한다. 6월 11일을 새생명 전도축제 주일로 정하고 이때 불신자들을 초청해 전도할 예정이다.

진유철 목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성장이 멈추고 쇠퇴하는 한국 기독교가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새생명을 전도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한 충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의 제38회 졸업식이 거행됐다.

국제개혁대 제38회 졸업식 거행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총장 박헌성 목사)이 제38회 학위수여식을 20일 나성서부교회(담임 서건오 목사)에서 거행했다. 기독교학 학사 6명, 기독교학 석사 2명, 목회학 석사 8명, 목회학 박사 2명, 명예 박사 1명 등 19명이 학위를 받았다.

안소연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에서는 성요셉 동문회장이 대표기도하고 김켈리 이사가 성경을 봉독했다.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김선규 총회장이 "분별력 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이광훈 교무처장이 학사보고, 박헌성 총장이 훈시, 나성서부교회 서건오 목사가 졸업생을 위해 기도한 후,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김광석 총회장의 권면, 캘리포니아신학대학 이홍우 총장의 격려사, 언약교회 고귀남 목사의 축사, 정종윤 이사의 광고, 이규보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가 끝났다.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및 세계예수교장로회의 인준 신학교이며 미국 기독교 대학들의 학위를 인가하는 ABHE로부터 정회원 인가를 받은 학교다. 이 학교는 8월 중순경 열리는 여름학기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을 모집 중이며 가을학기는 8월 21일 개강한다.

문의) 213-381-0081, www.irus.edu

라구나힐스UMC, 2017년 장학생 모집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담임 림학춘 목사)가 2017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함께 비전을 보고 함께 꿈을 꾼다"는 표어 아래 일반장학생 4명,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장학생 1명, 몽골선교지 현지 신학생 2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이 교회는 수년째 지역사회 대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소속 교단 신학생들을 도우며 몽골 선교지를 섬기고자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중 일반장학생은 현재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거나 부모가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2017년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 고등학생이 그 대상이다.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지원서를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 www.lagunaumc.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6월 13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하며 1인당 2천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지원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이메일로 통보가 되며 이후 모든 과정이 이메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교회 장학위원회 행정총괄 서기 김정두 목사에게 하면 된다. 이메일 lagunakumc@gmail.com, 전화 949-380-7777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8am~6pm, 토: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NEW EPISODE MUSICAL
THE KINGDOM of GOD
MUSICAL ETERNAL LIFE 2017
고문: 한기홍 목사 / 국장: 엄기석
극본/연출/감독: 김현철
Actor
예수역: 김재원 / 가롯 유다: 김선혁 / 마리아: 최은원 / 베드로: PETER YI
막달라 마리아: 권혜연 / 미가엘: 박동진 / 간음녀: 이정열 / 가브리엘: 장진우
요한: 손문식 / 야고보: 이성민 / 빌립: 이창현 / 안드레: 지용욱 /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신정아
마르다: 박태정 / 시민1: 허윤화 / 시민 2: 김영란 / 시민 3: 정성윤 / 시민 4: 남희경
제사장1: 정창현 / 제사장2: 이성호 / 제사장3: 이민호 / 제사장4: 고성환
군병장: 구진수 / 군병1: 변봉천 / 군병2: Marvin Park / 군병3: 류기선
살로메: 정경숙 / 악녀1: 장지유 / 악녀2: 지미옥 / 악녀3: 김주리 / 여자천사1: 이수희
여자천사2: 서예원 / 시민8: 윤혜숙 / 아역배우: 60명 / 엑스트라: 100명
Staff
팀마더: 이재정 / 행정팀장: 최지영 / 조연출: 이봉선, 공미연 / 기술 고문: 손영혜
안무가: 이수희, 지미옥 / 음악 감독: 최은원 / 무대 감독: 고유민 / 분장 팀장: 김주연
분장: 이윤선, 박지상, 강민지 / 의상팀장: 소피아 최, 제니스 백 / 재봉: 유덕원
예배 팀장: 김주리 / 중보기도 팀장: 이창현 / 무대 진행 팀장: 정윤경 / 소품감독: 셸리 황
소품 담당: 임상국 / 소품, 부 행정: 김장원 / 부 행정: 허윤화, 남희경, 새롬
자막 및 영어 번역: 김나희 / 광고 팀장: 제시카 리 / 무대미술: 김향숙 / 아역배우 팀장: 최현주
PHOTOGRAPHER: ROBERT CHOI / Poster, Flyer, CD Design: 최의정
Banner, Program Book Design: 이용욱 / 헤어 디자이너: 이은희
의상 재봉: 강선자 / Child Care: Helen Kim
문의: 714-446-6200
은혜서점: 714-440-1006
www.gracemi.com
예매처: LA - LA 기독 서적 센터 /
세리토스 - 복음사 / 플러톤 - 은혜 서점 /
가든 그로브 - 도르가 기독교 서점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일시: 2017년 6월 2일(금) 7시30 pm, 3일(토) 7:00 pm, 4일(주일) 6:30 pm 티켓: $10
장소: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0833



WKPC 총회가 목사회원 185명, 장로회원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열린문교회에서 개최됐다.

WKPC 신임총회장에 김광석 목사

'하나되는 교회' 주제 아래 제41회 총회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하나되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나성열린문교회(박헌성 목사)에서 열린 제41회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총회에서 신임총회장에 김광석 목사(라운드락한인장로교회, 중남부노회)가 취임했다.

그 외 임원은 부총회장 조의호 목사(성화교회, 뉴욕서노회), 장로부총회장 정진식 장로(나성열린문교회, 가주노회), 총무 신상원 목사(빌립보교회, 미주서부노회), 서기 김상태 목사(뉴욕우리들교회, 뉴욕남노회), 부서기 장길선 목사(이따꾸아교회, 중남미노회), 회록서기 서보천 목사(둘로스교회, 가주노회), 부회록서기 옥영철 목사(페어필드한인교회, 뉴욕노회), 회계 김춘경 장로(나성열린문교회, 가주노회), 부회계 김원석 장로(필라서머나교회, 뉴욕노회)로 결정됐다.

이번 총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세계선교회(GMS) 임원들이 친선사절로 축하 방문했다.

또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버지니아크리스천대학교에 이어 뉴욕개혁신학대학교와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이 인준 신학교로 새롭게 승인됐다.

이번 총회에서 세계예수교장로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와 통합되었다. 이 통합에 반대하는 미주합동 회원들은 다른 장소에서 같은 기간 별도의 미주합동총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빌 송 LA카운티 셰리프 커맨더가 인사하고 있다.

청소년 마약 예방 및 방지 세미나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18일 "마약 예방 및 방지 세미나"를 캘리포니아 인터네셔널대학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빌 송 LA카운티 셰리프 커맨더와 현직 셰리프 마약전담반 요원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한인 청소년들은 물론 많은 부모들이 참석해 마약 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강사들은 요즘 유행하는 청소년 마약의 종류를 소개하고 자녀의 마약 흡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며 경각심을 요청했다. 또 자녀가 마약에 빠졌을 경우 부모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도 소개했다. 세미나 후에는 전문가들과의 상담 시간도 마련됐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남부개혁신학대 졸업식 거행

남부개혁신학대학교 및 신학대학원이 본교가 있는 휴스톤에서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새생명침례교회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다.

총장 제임스 리 박사의 사회로 졸업식이 시작됐으며 랄프 네이버 박사가 "헌신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인승 박사가 학사보고를 했고 곧바로 학위수여식이 시작됐다. 이사장 이광선 박사와 LA 캠퍼스의 프레지던트인 김회창 박사가 학위증을 수여했다. 마지막에는 복음의 횃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LA 캠퍼스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과정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무엘 워시 목사(D.Ics.)는 "예수를 영접하는 기쁨인 자기부인", 이은주 선교사(D.Ics.)는 "멕시코 교회의 효과적인 전도전략과 방법론", 박정인 목사(D.Miss.)는 "교차문화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전도전략과 방법론", 금철 선교사(D.Ics.)는 "대만 성결교회의 효과적인 교회개척방법론과 성장 전략"이란 주제의 논문으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남가주벧엘교회가 야외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의 친목을 다졌다.

남가주벧엘교회 야외예배 드려

남가주벧엘교회(오병익 목사)가 5월 21일 풀러튼의 한 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성도가 연합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으로 쉼을 갖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교회 측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한 이번 야외예배는 푸짐한 경품과 다양한 게임을 통해 공동체의 화목을 다지는 알찬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한인기독교상담소 '부부, 행복한 동행'

한인기독교상담소(김화자 소장)가 오는 6월 한달간 4번에 걸쳐 LA와 OC에서 각각 '부부, 행복한 동행'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는 참석자들이 현재 자신의 결혼 생활을 평가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부부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원칙을 배우는 시간이다.

등록비는 25달러이며 LA(500 Shatto Pl. #501 Los Angeles, CA 90020)는 6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OC(7342 Orangethorpe Ave. #A103 Buena Park, CA 90621)는 6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각각 세미나가 있다.

문의) LA 213-738-6930
OC 657-529-1133

비즈니스 선교 이렇게 하라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가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포럼을 그레이스미션대학교(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도서관 세미나룸에서 개최한다.

이 포럼은 비즈니스를 통한 전문인 선교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사업가,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제임스 구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태국 방콕에서 어린이 교육 사역을 하는 이상수 선교사, 빈곤국가에서 우물 개발 사역을 하는 임영호 선교사, 몽골과 터키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 이예레미야 선교사 등 현장전문가들이 사례발표를 한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 중인 학생들이 비즈니스 선교 전략을 발표하는 시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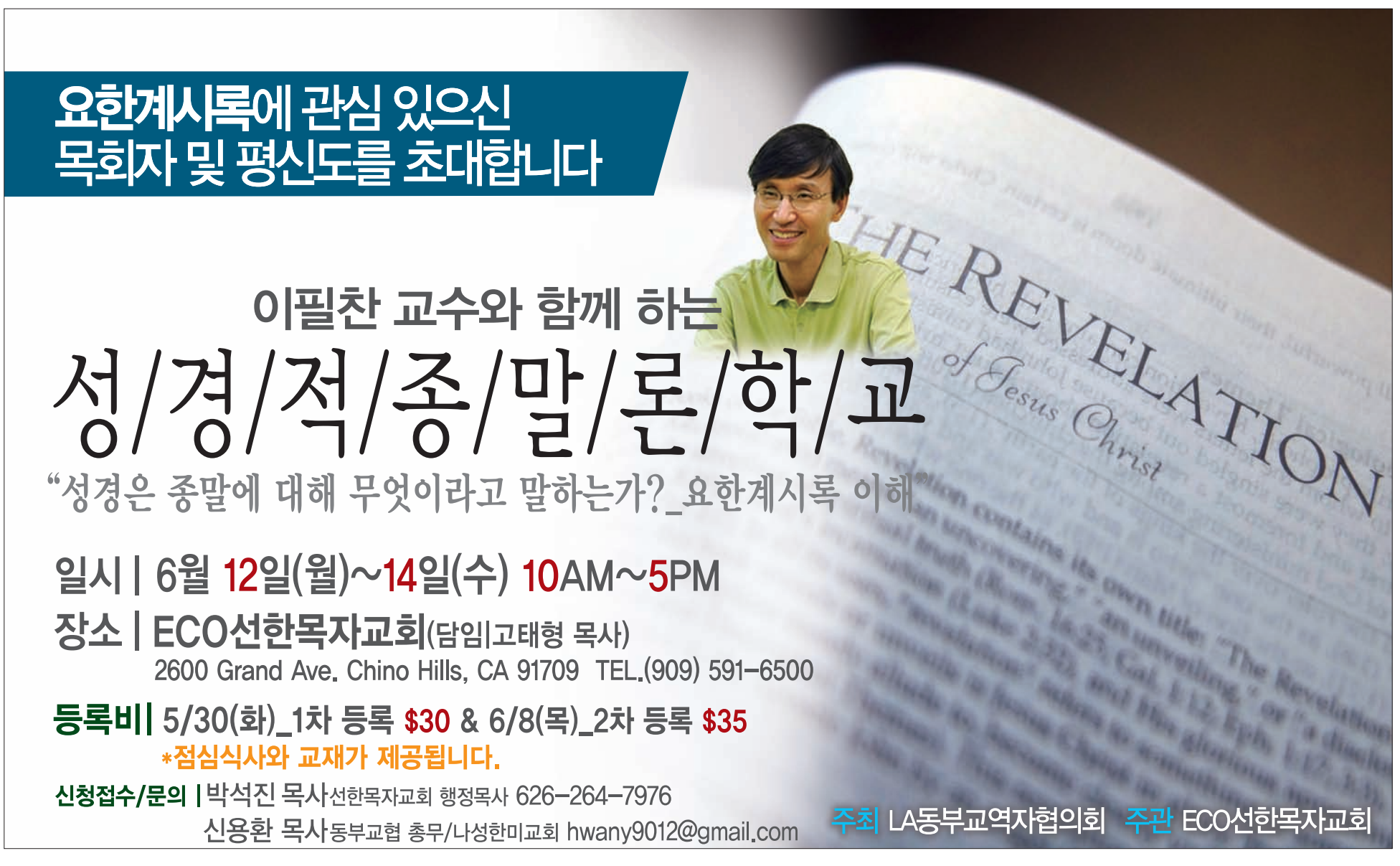
이 행사는 좌석이 제한되어 있기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www.churchhomepage.org에서 하거나 전화 714-393-4595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제임스 구 교수가 저술한 Strategic Models for Tentmaking & Business as Mission 책을 포함해 10달러다. 이 선교포럼은 6월 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열린다.

하루 만에 신약성경 통독하자

미주요한선교단 주최로 '제30차 신약성경 통독집회'가 오는 6월 17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

전문 통독강사들과 함께 하루만에 신약성경 전권을 모두 읽는 행사다. 장소는 헐리웃효순장로교회(담임 김동원 목사, 1101 S. Elden Ave. Los Angeles CA 90006)이며 참가 대상은 목회자부터 평신도, 학생까지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다. 참가비는 헐리웃효순장로교회가 장학금을 지급해 무료다. (문의 전화 213-268-3589)

한편, 이 단체는 이보다 앞서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이해 5월 29일 오전 8시부터 갓스윌연합교회(담임 이희철 목사, 904 E. Ontario CA 91764)에서 하루에 신약성경을 모두 읽는 제29차 통독집회를 연다. 참가비는 20달러다. (문의 전화 909-983-0994)





NCA 12학년 졸업생들이 졸업을 기뻐하며 자축하고 있다.

기독사학 새언약학교 졸업식 열려

개교 이래 첫 해군사관학교 입학 쾌거

LA에 18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독교 명문사학 새언약 초·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 이하 NCA)가 2017년 5월 18일 저녁에 교내 강당에서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고등학생 15명, 중학생 12명, 초등학생 10명, 킨더가든 10명이 졸업했다.

제이슨 송 교장은 이번 졸업생들에 대해 "210만 불에 달하는 장학금과 함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너무도 놀랍고 기쁜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교의 귀한 전통으로 자리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더욱 더 실력과 신앙이 성장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12학년 오드리 박(한국 이름 박주연) 양이 NCA 역사상 최초로 미국 해군사관학교(The United States Naval Academy)에 합격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UCLA, 페퍼다인,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등에 진학할 예정이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케빈 글린 미해군 중령이 축사하고 아니타 헨크 박사가 축사와 설교를 전했다.

WASC 정식 인준학교이며 IB(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NCA는 사립학교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를 자랑하며 지난 17년간 졸업생 전원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특히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로 알려져 있다.

문의) 213-487-5437

웹사이트) www.e-nca.org



김상범 박사와 홍대선 원장

어깨 통증 및 당뇨 치료 세미나

김상범 박사, 홍대선 원장 강의

산타아나 정형외과 그룹 대표 김상범 박사와 산타아나 정형외과 통증전문 한의사 홍대선 원장이 어깨 통증의 치료와 예방, 당뇨 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21일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가주제과제빵학교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의한 홍대선 원장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그날의 건강을 유지 시킬 뿐 아니라 내일의 건강도 좌우하게 된다"면서 "특히 약초의 복용은 면역 기능 향상 및 예방과 질병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특성과 인체 환경에 맞는 약초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약초가 중요하다"면서 "인디언 비터멜론, 두충, 민들레와 엉겅퀴가 당뇨 치료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몸에 좋은 식물을 이 땅에 많이 주셨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다. 시중 마켓에서 쉽게 구입하는 인디언 비터멜론은 재배도 쉽고 잘 자라며 당뇨에 탁월한 식물이다. 얇게 썰어서 말려 차를 끓여 마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권 쉘비 기자



미주대한신학대가 제22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미주대한신학대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미주대한(백석)신학대학교가 제22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을 풍성한교회에서 거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신학 학사 9명, 목회학 석사 4명, 목회학 박사 4명, 명예신학 박사 7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식은 박효우 총장의 사회로 시작돼 운영이사 이동명 박사가 기도하고 김영배 박사가 성경을 봉독했다. 이어 이병희 박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학위 수여는 박효우 총장이 진행했으며 대학원장 유웅렬 박사가 축사, 운영이사장 류당열 박사와 운영부이사장 신관호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박은종 박사가 답사를 전했으며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이태환 증경회장이 축도했다. 이날 졸업식을 축하하며 백석대학 설립자이자 백석문화대학 총장, 미주대한(백석)신학대 재단이사장인 장종현 박사가 서면으로 축사를 전해 오기도 했다.

이날 졸업식 후에는 목사안수식도 거행돼 경사가 더했다.

문의) 213-381-9490



솔로몬대학교가 제17회 졸업생들을 배출했다.

솔로몬대학교 제17회 졸업식

솔로몬대학교(총장 백지영 박사)가 제17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을 20일 오후 학교 강당에서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7명이 선교학 박사, 기독교문학 박사, 목회학 석사, 신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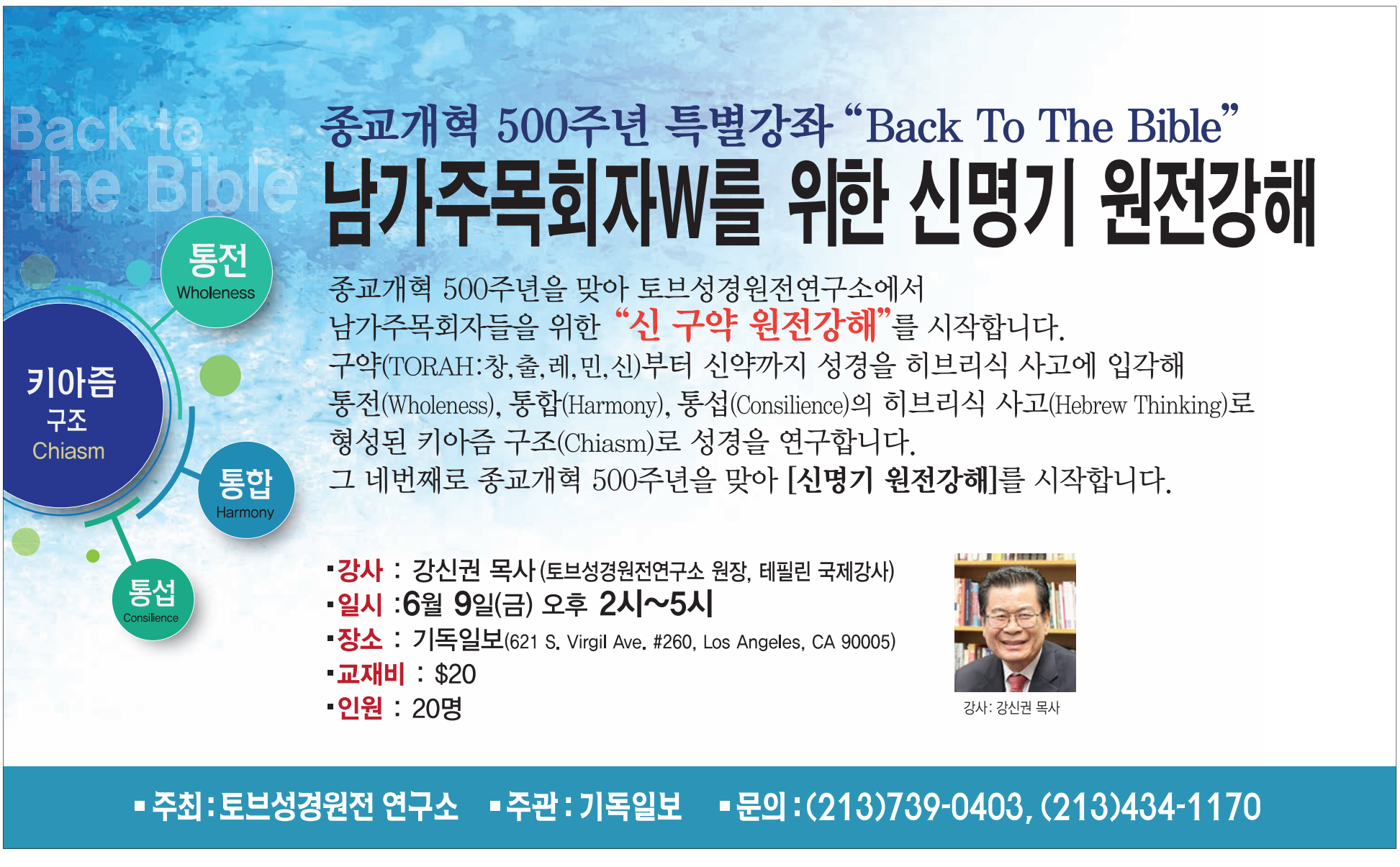
이날 백지영 총장이 인사, 김종용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이 대표기도, 김헬렌 남가주여성목사회장이 성경봉독, 홍춘만 목사가 설교, 심진구 목사가 헌금기도, 브렌트 프라이스 부총장, 김재율 남가주교협 회장, 마이클 리 아메리카헌팅톤대학교 총장 등이 축사, 류당열 목사가 축도했다.

문의) 213-381-7755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9〉

2017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다녀와서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한국 인터콥선교회가 주관하고 KWMA가 협력한 글로벌 얼라이언스 선교 컨퍼런스를 다녀왔다. 경상북도 상주시의 아름다운 산자락에 위치한 열방센터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작은 나라 한국에서 그리고 시골에서 세계 64개국 선교 지도자들을 포함 한 4,500여 명의 큰 영적 선교집회가 있을 수 있음에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놀라워했다. 첫날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예배로 시작된 집회는 가히 세계교회 영적동맹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떠올릴 정도로 강력한 시간이었다.

중동, 아시아, 미주 그리고 아프리카 등에서 온 각국의 지도자들과의 연합 찬양은 필자는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감동이었다. 여러 민족으로 어우러진 찬양 인도팀이 강단에서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매시간마다 다른 민족 찬양팀이 올라와 동시에 자기들의 언어로 찬양을 인도했다. 그리고 화면마다 아랍어, 터키어, 몽골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언어가 동시에 올려졌고 전세계의 어느 민족도 소외되지 않은 천국의 찬양이었다. 모두 각기의 나라 말로 찬양을 하는데도 그것이 그토록 멋지게 하나로 연합되는 찬양을 본 일이 없었다. 거룩했고 아름다웠다. 얼굴이 땀과 눈물 범벅이 되어 모두는 찬양드렸고, 연합 기도 때마다 그 큰 강당이 터질 것 같았다. 실로 엄청난 성령 임재의 예배를 오전, 오후, 날마다 드렸다.

성령 안에서 세계교회는 하나의 영적 연합을 이루어내었다. 예배에 이어 첫번째 강연을 맡은 강승삼 목사(KWMA 증경회장, 인터콥 이사장)는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120년 전 서방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 세워진 한국교회의 부흥 역사와 선교운동 그리고 21세기 세계선교 동맹을 주창할 땐 가슴이 뛰었다.

강연자가 한국어로 말을 하면 그 옆에 영어로 통역을 했다. 통역을 하는 같은 시간에 강당 뒤쪽에 자리한 총 8개의 통역 부스에서는 8개 언어의 통역이 이루어져 모두가 자기의 언어로 동시에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수천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아멘을 외칠 수 있었다. 필자는 그런 준비와 인적 자원 그리고 영적 리더십들을 갖춘 선교대회를 경험하며 감동과 충격에 휩싸였다. 집회 장소 안팎에서 만난 수백명 청년들의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필자는 잊을 수가 없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만나는 이들에겐 "와서 보라"고 말할 뿐이다.



제4회 글로벌 얼라이언스 국제 컨퍼런스 모습



과거 열렸던 뮤지컬의 한 장면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의 나라"

은혜한인교회 창립 35주년 특별 공연 6월 2일부터 4일까지

2017년 6월 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3일간 은혜한인교회 창립 35주년 특별 공연으로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 나라(Eternal Life 2017- The Kingdom of God)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복음의 스토리를 초대형 뮤지컬 안에 녹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2년 이래 이번이 5회를 맞이하는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는 매번 다른 주제(영생〈2012〉, 치유와 회복〈2013〉, 구속〈2014〉, 성령〈2016〉, 하나님의 나라〈2017〉)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보통 3일간의 공연에 6천여 명이 관람하는 등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뮤지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대본의 상당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 영원한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고 새 생명을 이루는 '성령의 능력'에 맞추어 쓰여졌다.

이 뮤지컬을 준비하는 창조문화선교단은 고문에 한기홍 목사, 국장에 엄기석 장로, 극본 및 감독에 김현철 전도사, 팀 마더에 이재정 권사, 조연출에 이봉선 집사, 공미연 집사, 행정팀장에 최지영 집사, 안무에 이수희 집사, 지미옥 집사, 음악 감독에 최은원 집사, 무대 감독에 고유민 집사, 소품 팀장에 샐리 황 집사, 의상 팀장에 소피아 최 권사가 사역한다. 또한 배우 부문에는 LA 최고의 복음성가 가수로 쓰임 받고 있는 이정열 자매, 성악가 최은원 집사, 박동진 전도사, 권혜연 사모 등 성악가와 CCM 가수가 함께 구성되어 팝과 성악을 넘나드는 뛰어나고 재능 있는 보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민사회 15개 교회에서 재능 있는 배우들이 함께 모여 초교파 뮤지컬 선교단인 창조문화선교단을 이루고 있다.

올해에도 영어 동시 자막이 있기에 2세 자녀나 다민족 친구들과 관람할 수 있다. 또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년층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즐기고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 제작되어 있다. 초대형 스크린에 무대 배경을 띠워 설치 미술과 동영상이 함께 움직이는 3D 형식의 연출에 1층과 2층 무대에서 250여 명의 출연진이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이 뮤지컬은 그 자체로도 감동을 준다. 이에 더해 입체적인 조명 기술과 브로드웨이 수준의 의상과 분장은 뮤지컬의 맛을 더해 준다.

이 뮤지컬은 김현철 감독이 4년여에 걸쳐 극본과 가사를 완성했으며, 작곡에는 정봉화 씨가 30곡 전곡을 작곡했다. 현대의 팝송 스타일과 클래식 오페라와 성가 스타일의 곡들이 모두 섞여 있어서 다양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극본이 완성된 것이 특징이다. 즉, 2세와 1.5세 그리고 타민족 모두 함께 관람해도 누구나 쉽게 음악을 이해하도록 창작되었고, 가사는 성경의 4복음서를 토대로 했다. 뮤지컬 극의 길이는 약 2시간 10분이다.

감독 김현철 전도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문화, 영원한 생명의 문화를 탄생시킨 분"이라며 "우리는 문화사역자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 뮤지컬을 관람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조문화선교단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배우들과 스탭들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21세~70세까지의 재능과 열정이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며 자유곡 1곡을 준비해서 간단한 오디션을 봐야 한다.

문의: 김현철 전도사
213-215-4662
이메일: ark1kim@gmail.com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라미라다 가든 꽃집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스 장학생 모집
Since 1966
리스장의사가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리스장의사
리스장의사가 반이민 정책에 힘들어 하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모든 한인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리스장의사와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알리고자 장학금을 준비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등 사회지도자들의 추천장과 학생 본인의 현재 상황, 꿈과 희망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한 학생당 $500, 20명에게 총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자격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한인 학생
이메일접수처 HR@leesmortuary.com
접수기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발표 6월 5일 개별 통보
지급일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지급장소 리스장의사 City of Orange 본사
홈페이지 www.leesmortuary.com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장례보험, 매장, 화장 상담 환영합니다
1000대 동시주차 규모의 넓고 편리한 파킹 / 아름다운 채플 / 깔끔하고 안락한 분위기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의사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히브리서 11:31-3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35절 하반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는 말은 부활은 확실히 있는 것이며, 그 부활은 신의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보장받기 위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28-29에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復活, Resurrection)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원론이라는 신학적 학설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육의 결합체로서, 영은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졌고 육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을 의지해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의 수한이 끝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7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한 것처럼 그 영과 육체가 잘 결합해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아담, 즉 사람으로 이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다시 분리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약2:26)"이라고 한 것처럼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말이 옳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답했지만 그는 하나님은 능히 그 뼈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시길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했고 에스겔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기를 공급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공급이 중단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가시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죽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음을 교훈하시기 위해 생기공급을 중단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기를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실현의 가능성은 과학적인 뒷받침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부활과 예수님을 통해 실질적인 견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을 믿지 못해 부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를 내어줄 때 그들의 영이 나오게 되며 세상에 흩어져있던 원소가 재결합해서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지워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용사이며 영웅같은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공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갔다가 위기에 처한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그들을 피신시켜 가족들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목숨을 거는 신앙 모험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영생복락을 구원이라는 조건에서 책임지고 보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300명의 용사를 모아 여리고 성을 함락했고,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한 것처럼 신앙적 용사들의 예는 허다합니다. 산헤립이 18만 5천명을 이끌고 유대를 쳐들어 왔을 때 선지자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들끼리 서로를 도륙하는 비극을 맞게 하셨으며 유대는 안전한 구원을 보장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신앙 영웅적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봉할 수 있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교한 신하들에 의해 보통 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거운 풀무 불에 던져졌지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단3:27)"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불기운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는 말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엘리야를 통해 다시 살게 된 것과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며 살다 얻게 된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의 확신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라야 악형을 받는 과정에서 믿음을 버리기를 강요당하더라도 그 상황을 구차히 벗어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의 소망을 더 나은 자격으로 이룰 수 있기 위하여 현실 속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초월하여 희생과 영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기를 바라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육신이 요구하는 세상 조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한 절대적인 신앙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붙잡혀 매임 바 되시길 바랍니다.

열거한 많은 믿음의 용사들과 같이 살게 된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신 말씀 중에 "너희 몸을 죽이려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영과 육을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영과 육의 결합체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영의 가치는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보배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적 입장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살아온 것은 가치관의 잘못을 저질러왔음을 깨닫고 영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재건하고 개발하여 발전시켜 가기 위해 이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는 죽이고, 빼앗고, 망신을 주며, 끌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입장에 해당되는 위협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가치 기준뿐임을 깨달을 때 어떠한 환란을 당해도 육체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체에서 파생되어져온 내 영의 가치가 영원무궁토록 소망적이어야 하고 더 나은 자격으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영적 가치 수호와 개발, 발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죽인다고 해도 이미 육신의 가치기준은 흙더미에 불과한 것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순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 노릇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마귀를 굴복시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목회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기독일보 주최로 김상덕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목회 성경에서 그 길을 찾다" 모임에 남가주 목회자들을 초대합니다.

"목회를 하며 힘들고 낙심 되는 일들이 얼마나 나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김상덕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배우며 '행복한 목회'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니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목회가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신 귀한 모임에 목회자분들을 초청합니다. – 한인소망교회 윤 목 목사



강사: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및 35년 목회

- **일시** : 6월 15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일보(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회비** : 없음
- **문의** : (310)715-9902, (213)434-1170

*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예약해 주세요.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 23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잔치를 엽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봉사,마음,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6월 17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교회 관리(사찰)
Part or Full time 직원 구함

세리토스
생수의 강 선교교회(담임목사:안동주)에서
교회 관리(사찰) Part or Full time
직원을 구합니다.

1. 자격 조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3. 제출방법
E-mail : breadhoon72@gmail.com
우편 : Living Water Mission Church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

4. 문의전화 T. (562)653-0168

생수의 강 선교교회

J.C 의료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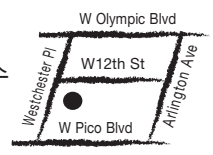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약을 먹어도 별 치료를
다해도 애를 먹이는 고질병, 손목관절,
허리통증, 어깨통증, 다리관절, 이명, 고혈압,
목 아픈 갑상선, 고엽제 환자 신기하게 치료됩니다.
30명 선착순 무료 치료
30명 선착순 선교차원에서 무료 치료합니다.
- 국제 침술사 제임스 남

열쇠 기술 속성반 모집



1년은 배워야 하는 과정이나
3개월 안에 연수, 졸업장, 자격증을 드립니다.
- 극히 작은 장소에서 영업 가능
- 극히 작은 자금으로 영업 가능
-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자영업
미국 학교에서 정식 연수한 최고 기술로써
40년간 경력이 있는 열쇠 세계 최고의 고수
김재홍 선생이 직접 전수합니다.



연락처 : T.(213)298-8384, T.(907)229-5575
주 소 : 1232 Westchester Pl, LA, CA 90019

다문화와 인류의 기원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한국은 오늘까지도 후손들이 위패 앞에 은덕을 비는 조상제사 제도가 지켜지고 있는 나라이다.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 혹은 '은자의 나라'라고 했던 구한말 개화기 선교사들조차도 조선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조상숭배국가라고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유교 문화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조상제사를 목격하지 못하는 시대지만 지금까지도 유독 한국만이 조상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이며 인류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으로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찾아 볼 수 있다.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와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장이다. 특별히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후예들이 등장하고 있다. 창세기 10장이 다문화 목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유는 인류의 기원과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계획들을 준비하셨는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70개 국가들이 정착한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야벳과 함 그리고 셈이었다. 야벳의 후손들은 터키부터 스페인까지 유럽지역에 정착했고 함의 후손들은 애굽,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중동지방으로부터 동쪽 즉 아시아지역에 정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셈의 후예는 크게 북부 셈족과 남부 셈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북부 셈족으로는 앗수르인, 아람인, 이스라엘인, 에돔인 등을 들 수 있으며 남부 셈족으로는 아랍인을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셈족은 대체적으로 황색 인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따르면 우리 민국의 조상은 셈의 후손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500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조상들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계승해 왔으며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근원지는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는 흑인과 황인 그리고 백인으로 나눠지고 이와 같이 다른 인종들은 각기 다른 조상 즉 고릴라, 우랑우탕 그리고 침팬지로부터 진화되었다 주장한다. 그러나 진화론과 다르게 성경에서 인류는 하나의 인종이라고 한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행17:26)라고 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인류의 기원과 구속사를 이해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누가 그 웃음을 빼앗아 갔을까?



김 성 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카카오톡인 것 같다. 어느 분은 카카오톡의 간판 사진 때문에 여행 중 25여년 만에 어릴 적 친구를 금방 알아보게 되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 나에게도 많은 회원들이 친구로 되어 있는데 그들의 간판 사진을 보면 모두 가장 멋진 사진을 올려놓았다. 그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보면서 재미도 있고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가끔 놀라는 일이 있다. 그 사람의 간판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맑게 웃을 때도 있었구나!" 하는 감탄이 나오는 때이다. 그분을 교회에서 볼 때에 반 정도 웃는 모습은 보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톡의 사진을 보면 너무나 좋고 친근하게 보인다. 그 때에 내 스스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이다.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같은 마음을 갖고 모인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렇게 해맑은 웃음을 빼앗아 갔을까? 우리의 잘못이 크지 않을까? 교회에서 마음껏 웃을 수 없게 만든 아픔들이 그 이유일 것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 깊숙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본인 스스로의 까다로움도 있을 수 있지만 헌신의 마음을 빼앗아간 우리 모두의 잘못은 없을까? 교회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은 앞에 다른 것이 안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길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들을 향해 가슴이 뜨겁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끄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그 입가의 웃음을 빼앗아 갔는가?

결국은 마귀의 장난이다. 얼마나 마귀가 노력을 하고 바쁘게 다니면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보려고 힘을 쓰는지 눈에 보이는 듯하다. 한 주를 지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20절)"고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소망을 주신다.

그 웃음과 헌신 그리고 열정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펴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 올 것이다. 교회가 해맑은 웃음을 찾는 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가득차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사랑의 원자탄 2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여수 애양원을 다녀왔던 저는 색다른 것이 있으리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철이 들고 제일 먼저 읽었던 책 중 하나가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양아들로 삼은 이 시대의 성자와 같은 분,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으로 그렇게 잃고도 두 아들 장례식 때 9개의 절대 감사를 드린 손 목사님의 글들을 읽었을 때의 그 충격은 아직도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럼에도 나같은 범인은 근접하기 힘든 저 꼭대기에 있는 분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 느낌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손양원 목사님 따님 되시는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이 기억났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은 자라면서 제일 힘들고 비참했던 시간이 자기의 두 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한 집에 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원자탄같은 사랑도 좋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자기 아빠가 미웠고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미성숙한 딸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십여 년 전 그 간증을 들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범접하지 못한 사랑의 실천은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당신 딸에게는 너무 잔인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마음 한 켠에 그 생각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가 있는 칠원면에 세워졌다는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현대식 둥그런 미술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을 빛낸 인물로 손양원 목사님을 애국지사로 지목하고 모금해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박물관 옆으로 손 목사님 생가도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안은 손 목사님의 일대기가 일목요연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소극장도 현대식 박물관답게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브리핑을 위해서 우리 팀은 소극장에 삼삼오오 앉았고, 50세 중반으로 보이는 기념관 관장이라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환영 인사와 함께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여기 관장으로 있는 안경선 목사입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 안재선 목사의 아들입니다"하고 90도 각도로 꾸벅 절을 하시는데,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기를 숨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에서 느꼈듯이 "사랑의 원자탄"이 있는 한 그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사시다가 지금 관장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아들에게 신학교 가라고 간절히 권하셨다는데, 그 이유를 자기 자신이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라는 것을 안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올해 말에 아프리카 부룬디에 나병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말에 저는 말을 잃고 한동안 소극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또 터진 것입니다.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보틀(1병) 구입시
Enesti UV CUT SUN 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1개
(8불 상당 사은품)

공짜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코정아쿠아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잎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에뜨레벨
être belle
Made In Germany

| 피부 회복력 강화 시스템 |

24캐럿 골드와 꿀의 환상 조합!

피부 세포 재생 솔루션

G/O/L/D/E/N/S/K/I/N

클렌징부터 마무리 크림까지 느낄 수 있는 24캐럿 골드 트리트먼트

1) 눈가 쿨링 효과와 풍부한 영양공급으로 뛰어난 퍼밍 효과로 건강한 눈매로!
2) 자외선이 강한 오전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탄력을 향상!
3) 밤 사이 충분한 피부 휴식과 영양을 채워주어 피부 컨디션을 회복!



■ 골든 스킨 케어 세트
Golden Skin Care Set

골든 스킨 아이 젤 15ml
골든 스킨 데이 크림 50ml
골든 스킨 나이트 크림 50ml
3종 세트 $256+tax

Biocüra

바이오큐어는 독일최대규모 코스메틱 막심과 엠에스코의 라인업 확장으로 의료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특허기술을 보유하여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큐어의 제조에 기술제휴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 놀라운 효과를 한알에 담다 |

■ 바이오큐어 트리트먼트 캡슐
TREATMENT CAPSULE

한알의 파워! 블랙캡슐
독일 제약회사의 기술력 바이오큐어

TREATMENT CAPSULE 50ml
$49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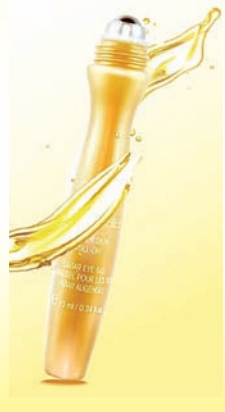


미백효과
탄력개선
주름개선
항산화
안티에이징
혈색개선

|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 캡슐 |

■ 바이오큐어 콘센트레 퓨어세럼
CONCENTRATE PURE SERUM





■ 골든 스킨 아이 롤-온
Golden Skin Eye Roll-on

휴대가 간편한 젤 타입의 아이 롤-온
탄력
피부결
수분공급
눈가 생기

Golden Skin Eye Roll-on 10ml
$34 +tax

■ 선 크림 + 애프터 선 로션
Sun Cream + After Sun Lotion

Sun Cream + After Sun Lotion 75ml+75ml
$44 +tax



선크림과 애프터 선 로션 패지키 상품으로 선블럭을 차단해주며 햇빛으로 인해 자극 받은 피부 진정까지 한번에 가능한 제품.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졸업생 40%가 아이비리그… 글로벌선진학교의 도전

창의융합 STEAM 교육, 글로컬 프로젝트 등으로 미래 인재 양성

기독교 국제화 대안학교인 글로벌선진학교(GVCS, www.gemgem.org)가 201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GVCS는 "올해 졸업생 40% 이상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미국 50위권 명문대학에 진학했다"고 18일 밝혔다.

GVCS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미국뿐 아니라 홍콩의 중문대, 과기대, 시립대 그리고 일본의 와세다대 등 아시아권 일류대학과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 대학에도 대거 진학했다. 특히,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약 70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약속 받았다.

GVCS는 "지난 2003년 개교 후 매년 졸업생 대다수가 세계 각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는 10년 간의 교육 노하우와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고 했다.

이처럼 GVCS는 성숙한 인격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개인 맞춤형 진학지도, 창의융합 STEAM 교육, 글로컬 프로젝트(Glocal Project)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창의융합 STEAM 교육'은 GVCS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STEA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교과 간 융합적인 교육방식을 의미한다.

GVCS는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 탐구, 실험 중심으로 전환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잠재력을 높이고, 각자의 꿈과 끼를 찾게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과학기술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2017년도 봄 학기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STEAM 교육을 도입했다. 수요일을 'STEAM DAY'로 지정해 온전히 STEAM 교과만을 운영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융합교육실을 개설, STEAM 교과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GVCS는 지난 방학 기간 동안 카이스트(KAIST) 융합교육 연구센터의 전문가를 초빙해 STEAM 교육 개념과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연수를 3차례 실시하며 새롭게 시행할 STEAM 교육과정을 준비하기도 했다. 또한 융합교육실을 마련해,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매주 학년별 STEAM 수업 지도 교사들이 모여 함께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GVCS 교직원들이 STEAM-SMART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GVCS

GVCS 설립이사장 남진석 목사는 "산업발달에 따라 글로벌 융합기술 사회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아우르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 목표"라며 "선진국 대학 진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탁월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과 주요 문화권에 진출할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컬 프로젝트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남진석 목사가 말한 '글로컬 프로젝트'(Glocal Project)의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을 합성한 단어로 선진국의 과도한 교육경쟁으로 인한 수많은 고급인재의 도태를 막고 개발도상국과 주요문화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어 훈련과 해당 국가 대학 진학을 돕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GVCS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권,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한 중화권,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권, 인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서남아시아권, 펜실베니아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북미권, 엘살바도르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권을 중점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GVCS는 "각 문화권 거점국가와 도시에 교육선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학생들이 현지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해 전문인 선교사는 물론, 현지 국가와 문화권의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현지화를 위한 주요 전공분야는 의학, 법률, 교육, 경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인공지능의 가치 판단 기준, 분명한 지침 제시해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2017 생명윤리 세미나' 개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 신일병원장)가 18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 드림홀에서 '2017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의 이해와 생명윤리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박상은 원장(샘병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손화철 교수(한동대 교양학부)가 발표했다.

협회 측은 "2000년 이후 컴퓨터의 급격한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 소위 4차 산업의 흐름이 물밀듯이 오게 되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인한 긍정적인 면뿐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이 현실화 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인공지능과 생명윤리의 문제는 어떠한 이슈에 못지않게 비중 있게 검토하여 분명한 성경적 관점과 지침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화철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자리'를 주제로 발제하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간의 자리가 어디이며, 어디여야 하는지를 묻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산업과 고용의 문제를 논하면서 사용됐다"며 "네트워크의 강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어나게 되는 4차 혁명은 인공물이 배움과 판단의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초래할 상황을 인간 대 기계의 논의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오류"라며 "기계가 인간의 직장을 빼앗는다는 식의 표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사회의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의 발전을 날씨의 변화처럼 생각해서 대비하려고만 하는 태도는 잘못"이라며 "기술 발전의 주체가 인간이라면 그 발전의 방향을 견인하고 속도를 조절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 입장은 기술이 인간을 추월할까 걱정하지도, 기술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애써 강조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세미나에서 주요 발제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손 교수는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며 "인류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겪어가도록 하되, 도덕적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전투 과정에서 살상의 대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규범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손 교수는 "인공지능이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지는 결국 도덕적-정치적 문제로, 그 판단은 인공지능 제작자의 도덕적 입장을 반영하거나, 인공지능이 도덕적 판단을 학습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들의 편향성을 반영할 뿐"이라며 "인류가 역사를 통해 내린 도덕적 판단들을 종합하여 학습한다면, 인공지능은 아마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감정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손 교수는 "먼저는 인공지능이 주는 유익과 해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발달을 무조건적인 선으로 보거나, 경제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들을 교정하고, 기술발전을 통해 인류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김은애 기자

제1회 미용선교사 양성을 위한 헤어컷 아카데미 10주 코스

10주만에 미용사(헤어드레서)가 된다면.....
선교지에서, 전도의 장에서, 봉사의 장에서, Job(잡)으로 .....
당신도 10주만에 Hair Cut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아시아 대회 우승자 김인태 집사가 직접 남·여 헤어컷을 집중적으로 개인지도 합니다.

과목 : 단발, 이사도라, 스파니엘, 중간 레이어 컷, 롱레이어 컷, 숏트 컷, 남성 컷, 샤기 컷, 상고 컷, 스포츠형 컷, 유행 컷 등...
회비 : $500 ($200불 상당 미용키트 포함) 가위 2개, 크리퍼, 레저컷 용, 마네킹, 꽂이, 빗, 스프레이 등
디플로마 증정 *간단한 다과, 음료, 파킹


강사 김인태 집사(나성순복음교회)
전 국가대표(86년)
아시아 대회 우승자
현 세미나 강사
팔레스뷰티 미용대학 초청강사
Queenstone Colleage 강사

▪ 일시 : 6월 29일(목) 오후 7:00~9:00
▪ 장소 :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등록 및 문의 : T.(213) 434-1170, (213)739-0403
▪ 선착순 모집 :10명
▪ 주최 : 기독일보



양교의 협약체결 모습 ⓒ영남신학대학교

영남신대-드류대 상호학생교류 협약

교환학생과 유학 등 다양한 협력

영남신학대학교(오규훈 총장)가 지방에 위치한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학술교류를 확장하고 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오규훈 총장 취임 이후 '인성교육'과 '세계화'를 핵심 목표로 실제적 학제개편과 해외 학생 교류에 힘쓰고자 2017년 1학기에 독일 마브룩(Marburg) 대학에 교환학생들을 보냈다.

지난 4월 18일에는 미국 뉴저지 주의 드류(Drew) 대학교의 신학대학원 학장인 하비에르 비에라(Javier Viera) 박사와 캐서린 브라운(Katherine Brown) 교수가 영남신학대학교를 방문해 영남신학대학교 관계자들과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MOU)을 맺었다. 상호 학생교류는 오는 2017년 2학기부터 시작한다.

최근 학교행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취임한 비에라 학장과 오규훈 총장은, 이날 급격히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에 학교의 미래를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이해 속에서 학술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양교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협정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후 비에라 학장은 이상근 기념관 정류홀에서 학생들과 만나 드류대학교와의 교환학생 제도를 설명하기도 했다. 비에라 학장은 드류 신학교육의 세 가지 특징을 "전통에 기반하고(Rooted), 혁신적이며(innovative), 용기 있는(Courageous)"이라는 세 단어로 규정하면서, "드류대학교의 졸업생들이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학문과 목회를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영남신학대학교학생들도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유학을 통해 드류대학교에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드류대학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졸업한 학교로서, 많은 한국인 동문들을 배출했다. 현재 레너드 스윗, 캐서린 켈러, 로버트 코링턴 등의 저명한 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다.

김신의 기자



길가에서 노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훈 목사 ⓒCTS 제공

포항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의 친구

CTS 7000미라클, 주훈 목사 이야기 방영

"좁은 길을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를 예수님으로 생각해요."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7000미라클 - 땅끝으로'(연출 전샘)는 23일 오전 10시 10분 포항에서 노숙자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사역을 하고 있는 주훈 목사의 사연을 방송했다.

주훈 목사는 목회자가 되기 전 17년간 사회복지사로 노숙자들을 섬기며, 노숙자 쉼터 원장까지 했다. 그러나 평신도로 이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기엔 부족함을 느끼고 41세에 목회자의 길을 결심했다. 그리고 포항지역에 노숙자들을 섬기는 이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연고도 없는 포항으로 내려가 2010년 참사랑 교회와 공동체를 세웠다.

그 후 지금까지 주훈 목사와 노경숙 사모는 자비량으로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게 주3회, 저녁 무료 급식을 베풀고 있다. 비록 사역비는 부족하지만, 매끼 채소와 고기를 골고루 섞은 푸짐한 식단으로 정성껏 50인분을 준비하며, 주 3회가 아닌 매일 급식을 베풀 수 있는 형편이 되길 기도하고 있다.

포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들에게 컵라면을 나눠주며 전도하고 있는 주훈 목사가,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닌 끝에 만난 한 노숙자. 그는 곡기를 끊은 지 오래 돼,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오로지 술로 연명하고 있었다. 주 목사는 해가 질 때까지 그와 친구처럼 대화하며 삶의 희망을 주는 모습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다.

그러나 주훈 목사는 마땅히 그 노숙자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 떠나 보내야 했다. 이렇게 삶의 희망을 잃은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쉼터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7000미라클 - 땅끝으로'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고 함께 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포항 참사랑 교회 주훈 목사의 후원과 중보의 손길을 기다린다.

김은애 기자

영화 〈서서평…〉, 9만 관객 돌파

故 서서평 선교사의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회복〉, 〈소명〉에 이어 역대 한국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한국에서 개봉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21일 기준 누적관객수는 93,607명. 이는 지난 2010년 개봉한 〈회복〉의 157,793명, 2009년 개봉한 〈소명〉의 97,529명에 이은 역대 3위의 기록이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개봉 5주차에 접어든 지난 주(5월 15~21일)에도 관객 7,434명을 동원해, 역대 흥행 2위인 〈소명〉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현재 개봉 중인 다양성 영화 가운데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

제작사인 CGNTV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 논산 육군훈련소, 기독법률가회(CLF),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국회 등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영화의 뭉클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글로벌 상영회도 준비 중이다.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한국학교 토 오전10:00 ~오후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화 오전11:00 ~오후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영어예배 오후 1:00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웰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영어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 매일QT 월~금 오전 6: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수요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30 / 3부 EWS 예배 오후 2:00 /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 금요기도회 오후 7: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 주일2부 오후 12:45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유년부 오전 11:00 /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 Awana 오후 8:00(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9:30 / 주일 3부 오전 11:30 /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한국 단기선교를 위해 꾸준히 이어져 오는 기도모임 및 배움의 시간

담임목사 모국의 기독교 역사 배우자

백인 성도들 한국 단기선교 준비

라그랜지 소재 어드밴트루터란교회의 박민찬 담임목사와 10명의 성도들이 오는 9월 9박10일 일정으로 한국 단기선교를 떠난다.

어드밴트루터란교회는 성도 대부분이 백인으로 구성된 유서 깊은 지역교회로 7년 전 박민찬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된 이후, 기존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도전하는 동시에 인근에 증가하는 한인 성도들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내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년 전, 몇몇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담임목사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방문해 한국 기독교는 어떤가 배우고 체험하고 오자는 '단기선교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계획해 기도를 시작했고 박민찬 목사가 함께 해 다양한 방면의 한국 기독교 역사 및 현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꾸준히 이어지던 기도모임이 열매를 맺어, 드디어 오는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부산 김해공항 도착을 시작으로 박민찬 목사의 모 교회인 부산광안중앙교회 합동예배, 수영로교회와 부전교회 탐방 등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한국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경주 관광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민찬 목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고신 측 목사님이시자 요양병원 사역을 하시며,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 이강호 목사님께서 저와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셔서 교회 성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숙박과 관광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비행기표만 구입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오는 7월이면 제가 미국교회를 섬긴 지 만 7년이고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종교개혁 500주년인 10월이 되기 전 성도들과 함께 한국을 단기 선교 차 방문하고 소개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윤수영 기자



뉴저지교협이 호산나 전도대회를 위한 1차 준비기도회를 18일 뉴저지동산교회에서 열었다. 기도회에 참석한 뉴저지교협 관계자들.

뉴저지교협 호산나 전도대회 준비중

1차 준비기도회 열고 성공적 집회 다짐

뉴저지교협(회장 김종국 목사)이 18일 오전 10시 30분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에서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를 위한 제1차 준비기도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다.

올해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는 오는 6월 23일(금)부터 25일(주일)까지 한소망교회(담임 김귀안 목사)에서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다.

뉴저지교협이 올해 부활절새벽연합예배를 아모리센터에서 성공적인 대규모 집회로 진행하면서 올해 호산나 전도대회를 통한 뉴저지교회들의 연합활동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날 준비기도회 1부 경건회는 총무 장동신 목사의 사회로 강영안 장로(회계) 기도, 윤명호 목사(부회장) 말씀, 김정문 목사(증경회장) 축도, 김종국 목사(회장) 광고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기도회는 이준규 목사의 인도로 △뉴저지 각 지역을 위해 △호산나 전도대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등을 기도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했다.

참석한 이들은 호산나 전도대회를 위한 기도에서 교협 전 회원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사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 또 교협 임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다.

GCU 제24회 졸업식 거행… 55명 학위 수여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총장 김창환, 이하 GCU) 제24회 졸업식이 지난 13일 오후 6시 본교에서 거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비즈니스대학, 기독교교육대학, 음악대학, 신학대학 등에서 학사 15명, 석사 34명, 박사 6명을 배출했으며, 마사지 테라피스트 7명 등 총 55명에게 영예의 학위가 수여됐다.

특별히 '장애인의 날' 기념예배 강사로 초청돼 애틀랜타를 방문 중이던 한국 정릉 생명샘교회 류한승 목사가 학위를 받았다. 한국의 ICU신학대학에서 공부한 류 목사는 이 학교가 조지아크리스찬대학과 MOU가 체결되어 있어 학위를 받았다.

김창환 총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단지 인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 바란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혜를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모습으로 사회에 나간다면 삶이 더 빛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길이 되리라 믿는다"고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복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이사장상을 이임순 김은자, 총장상을 이은희 최윤정, 성적우수상을 이금선 이경민 이미숙 서성수, 최우수논문상을 최강윤전, 동문회장상을 장효진, 한인회장상을 이경태 최보연, 동남부 노회장상을 권재롱 졸업생이 각각 받았다. GCU 이사장인 김선배 목사와 김창환 총장에게는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되기도 했다.

한편, GCU는 지난해 4월부터 뉴저지 교육부로부터 분교 설립승인을 받았으며 선교지인 아프리카 케냐 교육부로부터 정규대학으로 인정받아 기독교교육학과와 신학과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다. 윤수영 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오른쪽)가 악수하고 있다.

"미국은 핍박받는 기독교인 편"

종교 자유,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뿌리뽑겠다고 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국제회의'(World Summit In Defense Persecuted Christians)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BGEA)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해받는 교회들을 돕는 이들과 박해의 희생자들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자유의 챔피언"이라며 "세계를 위한 희망과 빛과 자유의 등대로서 미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확실히 헌신하겠다. 미국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덕 위에 빛나는 마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펜스 부통령은 "여러분의 신앙은 내게 영감을 주고 나를 겸손하게 한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영감을 준다. 우리는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 우리가 이 회의장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분은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 인내해 왔다. 신앙을 위해 세상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성문 밖에 있는 자가 되길 선택했다"며 위로했다.

그는 중동의 여러 지역을 언급하면서 "기독교인 박해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큰 우려 사항이었다. 미국은 기독교인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기독교가 탄생한 고대 땅에 기독교인에 대한 사나운 공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잔혹 행위와 고문 등의 범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오하는 박해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자들을 우리 시대의 악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또 "과거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 대한 남다른 증오심으로 테러를 벌이는 이들이 있었지만, IS같은 야만인들은 없었다"며 "세계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대학살을 저지른 책임자들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해 줄 수 있다.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모든 미국인들과 대통령도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신앙인들의 종교 자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라면서 "하나님이 미국을 계속 인도하셔서 열방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특별한 역할을 주셨음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해 "영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힘을 얻으라"고 당부하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연합할 뿐 아니라 미국이 여러분 편에서 함께 싸울 것이다. 모든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담대하라"고 위로했다.

강혜진 기자



줄리아 와드 ⓒADF 영상화면 캡쳐

차별금지법으로 역차별 당하는 기독교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기독교 사업가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과 신앙을 단순히 분리시킬 수 없다"며 종교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 영상물을 통해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최근 고등학교 상담사인 줄리아 와드를 비롯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차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와드는 "이번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다. 상담사를 준비 중인 다른 학생들도 내가 겪었던 일을 겪을 수 있다"며 "당신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잘라낼 수 없다. 신앙을 일터에서 스웨터처럼 벗어두었다가 집에 갈 때 다시 입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와드는 지난 2012년 이스턴 미시건대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그만두게 됐다. 신앙 때문에 동성애 고객을 다른 상담사에게 인계해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타협을 했지만 끝내 떠나야했다.

이 뿐만 아니다. 영상 서비스 회사인 텔레스코프미디어 그룹의 칼 앤더슨과 엔젤 라슨은 동성커플에게 영상 및 영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칼 앤더슨은 영상에서 "이번 사건은 정부의 강압과 강요, 벌금이나 처벌 혹은 구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러이러한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켄터키주 항소법원은 블레인 아담슨이 동성애 축제 홍보를 위한 티셔츠를 제작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자유수호연맹은 종교 자유의 중요한 승리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빨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장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주일학교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토요일 6:30 A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기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www.sellacare.com SEARCH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 심장, 뇌 혈전 용해 |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 **혈 관 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 졸 증**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있는 좋은 영양제

☑ *100% Organic* (유기농)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All Natural* (순수천연)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웍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랜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옆	714.333.7866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6503.0191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 변모성당의 전경
▲ 변모성당 내부의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4)

〈다 볼 산〉

주님께서 변화되시고 명령을 주신 변화산

성경에 나오는 다볼산

이스르엘 평원에서 북동쪽으로 대접을 엎어놓은 것처럼 솟아있는 산이 하나 있다. 산 폭이 400m(1,312f) 이고 산 길이가 1,200m(3,937f) 정도 되며 높이는 지중해 면으로부터 560m(1,837f) 정도다. 주변의 산들과는 동떨어져서 우뚝 독야청청한 산이 바로 다볼산이다.

이 산에 대해 시편 89편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그만큼 다볼산은 창조된 산의 대표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본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볼산을 산들 중의 산으로 표현하고 있다.(렘46:18) 다볼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후 잇사갈과 스불론 지파 사이에 있었다.(수19: 22) BC1200년경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있을 때 하솔 왕 야빈과 드보라 여선지자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바락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산으로 와서 군대를 정비한 후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다.(삿4장) 기드온의 형제들이 다볼산에서 죽었다.(삿8:19) 스불론 지파의 한 성으로 므라리인들에게 준 땅이기도 하다.(수19:12)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으로 안수할 때 다볼 상수리나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구절로 볼 때는 다볼은 상수리나무가 많이 있었던 곳으로 생각할 수 있다.(삼상10:3)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산을 미스바와 함께 언급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진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하였다. 아마 이 산에서 우상숭배가 고대에 있었던 것 같다. 가나안 땅에서도 시내산, 그리심산, 다볼산은 거룩한 산으로 생각했던 산이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많은 속죄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의 다볼 산은 'Tavor Mountain Reserve'로 불리는 자연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산 아래와 중턱까지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



멀리서 바라본 다볼산

다볼산의 역사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이곳은 BC 218년 헬라의 안티오커스 3세에 의해 요새화 되었다. 그 후 AD66-67년 베시파시안 로마장군의 요새가 됐다. 비잔틴 시대(4세기)에 이르러 이곳은 성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제롬과 유세비우스가 주께서 변모하셨다는 마태복음 17장으로 장소로 언급하였다.

AD326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에 의해 변모성당이 세워졌고 553년에 감독교구가 되었다. 670년부터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며 순례객들에게 영성훈련을 시켰다.

7세기까지 이곳에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 바쳐진 3개의 교회가 있었다. 614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수도사들이 순교 당하였다. 632-1099년 동안 아랍세계의 지배에 있었으며 십자군의 볼드윈 왕에 의해 교회가 재건되었으나 1187년 아랍의 살라딘에 의해 교회가 파괴됐다. 1212년 살라딘의 동생에 의해 이곳이 요새화되었지만 그 후 또 파괴되고, 1252년 교황 방문으로 다시 성소가 되었으나 후에 다시 파괴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1858년에 프란시스코 천주교단에 의해 현재 교회의 터가 만들어지고, 1873년부터 교회가 재건되기 시작하여 1921년 3월 16일 현재의 교회가 건립되어 1924년에 봉헌되었다. 오늘날 다볼산은 변화산으로 불려지며 많지 않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산 정상에 오르면 두 개의 기념교회가 나타나는데 왼쪽의 교회는 그리스정교회인 변모교회이고 오른쪽으로는 로마 가톨릭교회인 변모성당이다.

변화산의 교회들

교회 안으로 가기 전에 오른쪽 옥상에 올라가 이스르엘 평원과 벳산 평원 길보아산 요단 계곡 지역을 바라보자. 아름답게 펼쳐진 녹색의 바다는 이곳이 이스라엘인가 할 정도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제 돌아나와 왼쪽으로 가 보자. 멀리 골란고원의 능선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 그리고 구릉들 사이에 아름다운 빨간 지붕의 주택들을 바라본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자. 갑자기 가슴이 벅차다.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온다. 주께서 바로 이곳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한다. 마태복음대로 표현하자면, 주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곳에 오르셨고 저희 앞에서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주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말씀하고 계셨다. 변모교회 안에 들어가면 주께서 변형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것 같은 오묘한 느낌이 있다. 누가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변화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눅9:28-36)

필자가 처음으로 변모교회에 들어간 것은 1995년 겨울이었는데 변모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물결치듯이 몰려왔던 기억이 있다. 교회는 온통 주님의 변형 사건을 벽화로 나타내고 있다. 교회 입구 왼쪽에는 모세 기념 예배실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엘리야 기념 예배실이 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권세를 주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이 변화산 곧 다볼산이라고 혹자는 주장한다. 성경에 명확한 산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형되신 모습을 나타내신 이 산이 마지막 당부의 장소로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말이다. 변화산에서 변하여야 할 것은 이제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다시 이 산에서 점검해 본다. 〈계속〉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선교 찬양 단원 모집
•단장 : 1명 •기타 : 1명
•단원 : 12명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에뜨레벨 être belle Made In Germany
| 피부 회복력 강화 시스템 |
24캐럿 골드와 꿀의 환상 조합!
피부 세포 재생 솔루션
G/O/L/D/E/N/S/K/I/N
클렌징부터 마무리 크림까지 느낄 수 있는 24캐럿 골드 트리트먼트
1) 눈가 쿨링 효과와 풍부한 영양공급으로 뛰어난 퍼밍 효과로 건강한 눈매로!
2) 자외선이 강한 오전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탄력을 향상!
3) 밤 사이 충분한 피부 휴식과 영양을 채워주어 피부 컨디션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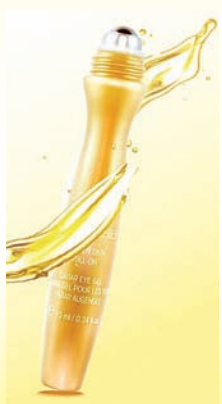
■ 골든 스킨 케어 세트
Golden Skin Care Set
골든 스킨 아이 젤 15ml
골든 스킨 데이 크림 50ml
골든 스킨 나이트 크림 50ml
3종 세트 $256 + tax

Biocüra
바이오큐어는 독일최대규모 코스메틱 막심과 엠에스코의 라인업 확장으로 의료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특허기술을 보유하여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큐어의 제조에 기술제휴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 놀라운 효과를 한알에 담다 |
■ 바이오큐어 트리트먼트 캡슐
TREATMENT CAPSULE
한알의 파워! 블랙캡슐
독일 제약회사의 기술력 바이오큐어
TREATMENT CAPSULE 50ml
$49 + tax


미백효과
탄력개선
주름개선
항산화
안티에이징
혈색개선

|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 캡슐 |
■ 바이오큐어 콘센트레 퓨어세럼
CONCENTRATE PURE SERUM



■ 골든 스킨 아이 롤-온
Golden Skin Eye Roll-on
휴대가 간편한 젤 타입의 아이 롤-온
탄력
피부결
수분공급
눈가 생기
Golden Skin Eye Roll-on 10ml
$34 + tax

■ 선 크림 + 애프터 선 로션
Sun Cream + After Sun Lotion
Sun Cream + After Sun Lotion 75ml+75ml
$44 + tax

선크림과 애프터 선 로션 패지키 상품으로 선블럭을 차단해주며 햇빛으로 인해 자극 받은 피부 진정까지 한번에 가능한 제품.

구입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 이동주 칼럼

존 웨슬리의 '만인속죄론'은 현대의 만인구원 신학과 같은가? (2)



이 동 주 소장
선교신학연구소

1. 웨슬리의 선교와 복음주의
1) 복음주의 개념 정의
2) 웨슬리의 복음주의 선교
3) 평신도 선교

〈지난 호에 이어〉 교권주의와 형식과 제도에 매여 있는 국교를 배경으로 한 웨슬리가 여러 모양으로 전통적 교회 규범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감행할 수 있게 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급속도로 신도회(Society)가 확장되며, 따라서 확대되는 신도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자를 대폭 등용하고 여성인력을 사용하게 된 그의 판단기준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며 세계복음화와 선교를 위해 혼신을 다한 그의 선교목적에 있었다. 강력한 영혼구원의 목표가 그의 판단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평신도 사역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웨슬리 생존시에 모였던 12만 명이라는 최종 연회(1790)의 감리교회의 통계숫자가 결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웨슬리가 평신도를 사역자로 등용하게 된 동기는 그의 모친 수산나에게 있었다. 웨슬리는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신도회를 맥스필드(Thomas Maxfield)에게 맡겼는데, 그는 성경을 읽고 설명하다가 그만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던 것이다. 웨슬리는 이 소식을 듣고 불쾌한 마음으로 급히 돌아왔다.

그때 수산나는 거리낌 없이 아들에게 맥스필드의 일을 좋게 생각한다고 실토하며, "그도 너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설교하도록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변호해 주었다. 웨슬리는 실로 맥스필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어머니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740년에는 감리교의 첫 공식적 평신도 설교가 시행되었고, 그후로 복음은 평신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되었다.

1744년에 개최한 첫번째 연회는 평신도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자는 교역자가 없는 경우에 양떼를 먹이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되 ① 조석으로 그들에게 성경말씀을 해석해 준다 ② 매주 연합신도회와 소회, 선발 신도회와 참회자반을 소집한다 ③ 각 속을 월 1회 방문한다 ④ 신도간의 이견을 듣고 조정해 준다 ⑤ 말썽을 일으키는 신도를 심사하여 시정해 주고 소회나 신도회에서의 제소를 받는다 ⑥ 집사나 지도자들이나 선생이나 건물관리인들이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가를 살핀다 ⑦ 집사와 소회의 지도자를 매주마다 만나고 그들의 회계장부를 검사한다 등 그 사역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1746년 연회록은 "선교에 알맞는 목회"를 위한 설교자의 지침을 내놓았는데, 그 지침서에 따르면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설교를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감리교회 설교자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했다.

①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며, 하나님 밖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 대화의 자세가 경건한 사람 ② 사역을 위해 은사와 은총을 받은 사람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명하고 건전한 이해력을 지니며,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바른 판단과,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말솜씨가 있고, 바르고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 ③ 열매가 있고 그들의 설교를 통해 회개한 사람이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칭의의 신앙과 회심과 영혼구원과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주의였으며, 평신도 사역자들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음으로서 세계선교가 힘차게 뻗어나갔던 것이다.

감리회 평신도 사역의 기초가 수산나의 선교적 열정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는 "나에게 20명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다 선교사로 보내겠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라며 세계선교에 대한 선각적인 소원을 고백했던 것이다.

웨슬리가 여성의 힘을 선교자원으로 사용하게 된 동기 역시 그의 모친에게 있었다. 남편 사무엘 목사가 오래동안 집을 비우는 동안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므로, 수산나는 부엌에서 하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편과 기도문 및 설교문을 낭독해 주곤 했다.

그 예배가 확대돼 친구들과 이웃들이 참여하여 200여 명 넘게 되었다. 그때 그의 사역에 관하여 부목사인 인맨이 찬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저녁 비밀집회"를 해체하라고 수산나를 위협했다. 그것을 안 남편 사무엘도 '부엌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만류하였다. 그러나 수산나는 이에 관하여 단호했다. 오히려 부목사에게 교단적으로 공식 명령하기 전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남편에게도 "가족에 속한 영혼들에 대한 최고의 책임이 가장이요 성직자인 당신에게 있기는 하지만, 당신이 안 계실 때도 당신이 나에게 맡겨준 모든 영혼을 나에게 위임된 달란트로 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기도문을 다른 사람에게 읽도록 하셨지만…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설교문 한 토막을 더듬거리지 않고는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들릴 만큼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당신이 이 모임을 해체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양심에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당신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두려운 법정에서 서게 될 때, 나의 모든 죄와 형벌을 면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충실하고 분명한 말로 나에게 긍정적인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부엌 집회'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지속되었고, 수산나는 그 집회를 '우리 신도회(Society)'라고 칭했다. 웨슬리가 그의 공동체를 감리교 신도회(Methodist Societies)라고 호칭한 것과 병행된다. 실로 수산나는 감리교 선교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진다.

그후 감리회에서 허락 받은 여성 설교자는 Saran Grosby였다. 그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 설교하고 목회했던 Mary Bosanquet도 있다. 웨슬리가 그를 하나님의 특수한 부르심(extraordinary)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1787년 소경이며 귀머거리였던 여성 설교가 Sarah Mottet을 여성 설교자로 공식 인정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능력있는 영적 설교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솔직했던 웨슬리는 전도하지 않는 어떤 권위나 제도도 과감히 개혁할 수 있었다. 그의 비판 척도는 그 일이 선교와 영혼 구원에 유익한가에 있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인가라는 영적 분별력에 있었다.

4) 부설: 현대교회 여성사역과 선교

1989년 가을학기 필자가 시무하던 합동신학교에서 '여성교역'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던 해에, 교내에서 여성의 설교 사역에 대한 논쟁이 크게 일어났다. 그때 여성 설교를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던 한 성서신학 교수의 조교 아내가 되는 2학년 여학생이 기말고사 마지막 문제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소견을 적으라.

답) "… 성경의 주장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성사역은 불가능한가? 이번 학기를 시작할 때 여성 사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고 과목에 임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성일지라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도록 나를 쓰실 것이라는, 언젠가는 내가 그들에게 도움과 가르침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태껏 가져왔지만, 이러한 생각이 송두리째 무너진 기간이 바로 이번 학기였다.

여성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허용되었는가의 근원적 문제부터 시작하여, 가정 생활에서 충실하고, 가정의 영역에서 섬기는 것이 여성의 최대의 봉사, 섬김이 아니겠느냐는 제안을 듣는 것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명쾌하지 않으나 가닥이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다."

이 답안지는 물론 필자가 가르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지는 못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남겨놓으신 단 한 가지 유언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자인하고 있는 복음주의와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27억이나 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인구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있다. 과거나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세대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생각할 때, '누가 설교를 해야 하는가, 누가 영혼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와는 대조적으로, 독일 감리교회는 여성이 설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수받지 않은 교역자(전도사)도 설교 후 축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설교와 축도가 인간의 권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와 축도의 주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이 더 중요한 것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물고 있으라, 여자에겐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그 막대한 여성적 동력을 묵살해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정말 여성은 말씀 선포의 사명을 받지 않았을까? 만일 여성도 남성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전도 대상은 여성이나 아이들이어야만 할까?

여성 설교 사역의 가능성 여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척도가 되는 경전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믿어진다. 그렇다면 성서는 여성사역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계속〉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아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 CA 90019

미술 서양화 3개월 특수반

초보라도 3개월 연수하면
최소 100불 상당의 그림을
시장에 팔아도 잘 팔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수업시간 : 매주 2시간
수강료 : 매달 $200불
(재료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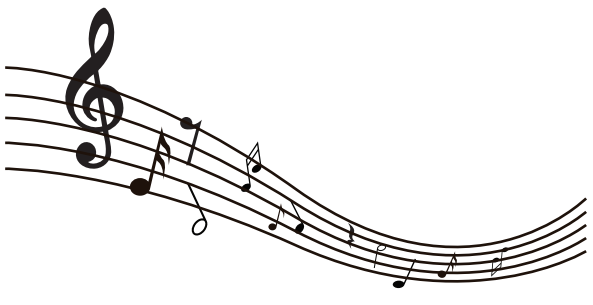


* 국제 상도 받은 40년의 경력
* www.amazon.com 에서 유일하게 판매되는 서양화가 James Nam Suk Hoon!!

남석훈 예술의 집
(기타, 피아노, 드럼 3개월 속성반 모집)

이봉조 악단에서부터 수 십년의
재즈 밴드로 활약하며 얻은
많은 경험의 노하우로
초보자도 3개월, 1주에 1시간 이면
복음성가, 찬송가의 훌륭한 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로택스 호텔 근처)

수강료 : 월 $120



평화통일 선교회

무력으로 통일을 하느냐
기독교 정신으로 평화 통일을 하느냐
평화통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평화통일의 간증이 있으시면
간증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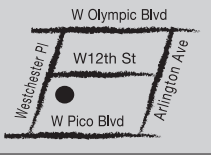
통일학 개론 강의(매주 OPEN)

강사 : 남석훈 피아니트 선교사

사역 : 상담학 박사 에스터 남 선교사

미주 통일 연구원 한민족 연합회
총재 : 남 석 훈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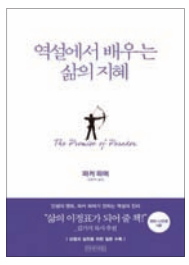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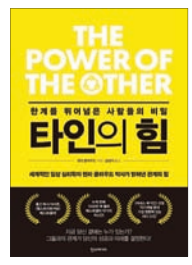
신간 도서

역설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파커 파머 | 김명희 역 | 아바서원 | 216쪽



저자가 쓴 〈가르침〉이란 전작의 개정판으로, 모순을 마주하는 새로운 자세뿐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와 공동체성에 대한 정의, 세상 결핍이 전제하는 사고 방식, 왜곡된 '가르침'의 개념과 그로 인한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말한다. '교사들의 교사'로 알려진 저자가 삶을 통해 깨달아 일평생 가르쳐 온 역설의 진리가 모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타인의 힘
헨리 클라우드 | 김성아 역 | 한스미디어 | 300쪽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거시적 환경이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 자신의 기량 등에서 찾는다. 저자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타인의 힘'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패는 곁에 누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힘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우즐라 코흐 | 이은자 역 | 솔라피데 | 240쪽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남성들만의 역사가 아니다. 저자는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여성들인 룻, 하갈, 밧세바, 한나, 리스바의 삶을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는 독일 태생으로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문학, 역사학, 기독교학을 공부했고, 독일의 9년제 중고등학교인 김나지움에서 국어, 역사를 가르치다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삶을 바꾸는 십자가의 14가지 능력
노용찬 | 세움과비움 | 348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용으로 전했던 저자의 설교 14편을 모았다. 저자는 책의 제목에 대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깊이 깨달아 전파해야 할 복음의 내용도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상담코칭학 박사 과정을 공부한 상담전문가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강대상 바꿨을 뿐인데… 변화의 목회, 이렇게 어려운가

책의 제목은 '은유'가 아니다. 베스트셀러 제목(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패러디도 아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어쩌면 그게 더 충격적이다.

"눈과 귀가 다 닫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웅성거리는 소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제 리더십에 너무 자신만만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중서부 250명 규모의 목사인 데릭은 기성 교회들의 변화가 어려운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변화는 방법론적이고도 점진적이었다. 그렇게 8년을 사역하던 중,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마음에, 사용하던 강대상을 치우기로 결심했다. 관리인을 시켜 낡은 강대상 대신 새로운 스타일의 작은 강대상을 설치했다.

데릭은 이후에 벌어질 갈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한 주간 많은 이메일과 전화가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강대상을 다시 가져오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고, 고민 끝에 돌아오는 주일에 전 교인 앞에서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다소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섰다. 곳곳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예배당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
톰 레이너 | 정성묵 역
두란노 | 216쪽

사방에는 매섭게 바라보는 눈이 가득했다. 하지만 강대상이 있던 자리를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옛 강대상이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울부짖었다.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성장 연구가인, 저자 톰 레이너 박사는 실제로 발생했던 이 사건에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

"목사의 힘으로만 하려 기도하지 않은 것,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 소통하지 않은 것, 사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등이 데릭과 저자가 함께 찾아낸 문제의 원인이었다. 그저 강대상을 바꿨을 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냥 강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저자는 교회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이 책에서 그 8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① 기도하기 ② 현실 직시 ③ 동역자 찾기 ④ 비전 제시 ⑤ 관계 회복 ⑥ 지역사회 섬김 ⑦ 변화의 증거 ⑧ 실천하기 등이다.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변화를 이끄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수준으로 부르셨는데 그저 좋은 수준에 안주하는 것은 죄"라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시대에 변화를 이끌 리더로 당신을 부르셨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기독교 에세이 넘어선 새롭고 돋보이는 언어유희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17] 사랑이 위독하다

'이런 책도 다 있구나!'

이번에 소개하는 〈사랑이 위독하다〉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입니다. '이런 책도 다 있구나!'는 말에는 형식과 내용, 다 해당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갖는 새로움은 글이 종이의 끝까지 이어지는 산문 형태가 아니라, 시나 블로그에서처럼 몇 단어를 나열하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을 펴면 여백이 많기 때문에, 읽기 전부터 '읽어볼 만하다'는 청량감을 줍니다.



사랑이 위독하다
김겸섭 | 토기장이
288쪽

이런 문단의 구성은 단어에 있어서도 생략을 줘서 문장을 간편화시키면서 글의 내용은 산문이지만 시를 읽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가령 82쪽에 보면 '이후 이 세상, / 선을 악으로 보는 왜곡, /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혐오, / 진실을 거짓으로 음해하는 이간질, / 이런 추(醜)한 것들로 /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분명 내용은 산문인데 주격조사와 접속조사를 뺌으로써 평범한 문장을 비범하게 하고, 운율을 줘서 생동감을 살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책의 표지입니다. 책의 제목은 '사랑이 위독하다'입니다. 이 문장에서 포인트를 준 것은 주격조사인 '사랑이'에서의 '이'입니다. 다른 글자는 다 검정색인데, 이 '이'만 연두색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보이는 새로운 형식적인 면을 고려할 때, 제목을 '사랑, 위독하다'나 '사랑 위독하다'고 할 만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글 속에선 자주 생략하는 주격조사에 포인트를 준 것은 제목과 내용의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갖는 새로움은, 우선 단어의 '언어유희'가 많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개의 눈을 알려주면서 '살피는 눈과 보살피는 눈(62쪽)'으로 나누고, 시대를 왜곡으로 살게 하는 네 가지로 '불편(不便)과 불만(不滿), 불쾌(不快)와 불안(不安, 83쪽)'으로 정의하며, 사무엘상에 보이는 두 개의 돌, '사울의 돌과 사무엘의 돌(96쪽)'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서로 비슷하거나 다른 뜻을 지닌 단어 중 같은 음절을 가진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유희(遊戱)'입니다.

다음으로 형식의 새로움에서 지적했듯 내용은 산문인데 형식은 운문(시)이지만, 엄밀히 보면 내용도 시와 비슷합니다. 한 문장 안에 여러 뜻을 넣어, 시처럼 한 번 읽었어도 다시 읽게 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아는 게 많다 보니 일부러 문장을 변형시켜, 글을 쓰는 자신도 즐거움을 느끼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처럼 지적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자 한 거 같습니다. 단순히 형식의 변주뿐 아니라, 깊이의 변주까지 이끌어 내고자 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저자의 이력과 약력이 소개되어 있는 앞날개를 자주 봤습니다.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철학, 역사, 성경, 문학, 상식 등 온갖 많은 지식들을 이질감 없이 자신의 주장에 녹여내었기 때문입니다. 앞날개에서 소개된 저자의 이력을 읽어보면 그의 박학다식과 글 실력에 수긍이 갈 정도로 전방위적인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내용적인 면이 갖는 세 번째 새로움입니다.

이런 필력으로 인해 기독교 문학의 '에세이'가 갖는 단순성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문학의 에세이는 지극히 성경적이거나, 설교를 집중시키기 위한 예화 정도이거나, 교훈을 주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번 책 〈사랑이 위독하다〉는 인문학 도서로 분류해도 될 만큼 읽는 이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성경이 '경전(輕典)'이 갖는 무거움의 선입견을 덜어내고 읽더라도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읽어야 될 필수 도서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책에는 다른 도서에서 인용한 글귀를 연두색으로 처리했는데, 이 부분만 따로 읽거나 묶어서 책을 내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지식적인 면에서 월등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자칫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기독교 도서'라고 봤을 때, 이 책에서 성경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은 철학, 역사, 성경, 문학, 상식 등과 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책'에 불과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것을 'ㅡ(으)'와 'ㅗ(오)'라는 모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ㅡ(으)'의 일반 도서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기독교 도서에서의 글은 성경을 'ㅗ(오)'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성경도 'ㅡ(으)'의 도서들 중 하나로 여기게 합니다.

또 하나 걸리는 건, 저자가 여러 분야에 아는 게 많다 보니 내용이 다소 현학적이고 모호하면서 자신의 지식 자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수사(修辭)가 너무 많고, 문장 형식의 새로움도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선 의도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돋보이는 에세이'라는 측면에선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도서 시장에서 기독교 문학이 낮은 대우를 받는 데에는 작가의 편협한 독서폭과 한정된 지식, 구습에 매인 글의 형식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이 책은 기독교 문학도 일반 문학에 뒤지지 않는 양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기독교 도서 시장이 아니라, 일반 도서로 어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나아가 기독교를 알고자 첫걸음으로 삼는 책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읽게 한다면, 상식도 넓히면서 자연스럽게 성경과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좋으리라 봅니다.

서평가 이성구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완전한 계시 주어진 후 우리의 논쟁 역사

윌리엄 커닝함의 〈역사신학〉 첫 권 번역



역사신학 1
윌리엄 커닝함 | 서창원 역
진리의깃발 | 552쪽

심오한 복음주의적 통찰력을 지녔던 스코틀랜드 역사신학자 윌리엄 커닝함(William Cunningham, 1805-1861)의 대표작 첫 권이 진리의깃발에 의해 번역됐다.

이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은 본래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까지, 그리고 종교개혁부터 저자 당대의 스코틀랜드 교회에 이르는 개혁신학을 2권에 나눠 상술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판은 주제와 시대의 세분화를 위해 네 권으로 나눠 출간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한글판 첫 권은 '교회론'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공회와 사도신경, 사도적 교부들과 이단들, 2-3세기 교부들, 첫 2세기 동안의 교회, 교회의 헌법, 삼위일체 교리, 그리스도의 인격 등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교 역사 속 '교회'의 위치와 역할, 즉 첫 3세기까지의 교회 역사와 교리 논쟁을 통한 정통 교리의 확정, 그리고 교부들의 교훈에 대한 진위여부, 이단들의 특성과 교회 정치제도 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3세기까지의 교회 역사를 교황제 가톨릭과 비교하여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을 변증하고 있으며, '감독제'에 대한 비판 등 저자 당대 교회에 대한 평가도 시도하고 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책에서는 아직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윌리암 커닝함의 생애에 대해 이안 머레이의 글을 통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책을 번역한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원장 서창원 교수(총신대)는 "이 책을 통해 성경이 얼마나 참된 진리이고 그 진리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임과,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오류와 잘못을 밝혀내는 유일한 잣대가 됨을 더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하나의 큰 감흥은 장로교회 목사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깊이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현실을 보면 교회의 역사를 장로회주의 원리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책들은 그리 많지 않다"며 "더욱이 교파주의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장로회주의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인기를 반감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선 "한국 절대 다수의 교회가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마당에, 단순히 소속 교단으로서의 명분이 아니라 왜 장로교 목사여야 하고 성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밀물처럼 밀려오기 때문"이라며 "또한 장로회주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장로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명확하게 부여잡지 못한 이들에게 이 책은 교회역사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적 측면으로도 자긍심을 깊이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회사에 대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교통하심, 특히 인간의 타락 이후로 그의 백성들을 대하심, 그리고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나 그들이 만든 국가와 더불어 행하심 등에 관한 모든 기록을 이해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이래 벌어진 수많은 논쟁의 역사"라고 정의한다.

저자는 "교회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중세사와 현대사 사이 위치한 종교개혁 시기임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이 발생했을 당시와 그 이후로 기독교 신학과 신학적 문서에 나타난 모든 주제가 방대한 양의 지식과 학문이 뒷받침되어 논의되고 배양되었기 때문"이라며 "사도시대 이후 첫 4세기에 드러난 교회는 어떤 차원에서 가장 순수한 상태였지만, 후에 폭넓게 번지게 된 오류와 타락의 모든 씨앗이 뿌려진 시기이기도 했다. 그 어두움은 종교개혁의 빛에 의해서만 없어질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 커닝함은 국가교회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 국가의 간섭을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고, 로버트 찰머스와 함께 1843년 5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Free Church of Scotland)의 산파 역할을 했다. 그는 이후 1847-1861년 소천 시까지 에딘버러 뉴칼리지 학장으로 있으면서 칼빈주의 신학자로 탁월한 면모를 보였으며, '스코틀랜드의 칼빈'이라 불리고 있다. 이대웅 기자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May 25, 2017 Vol. 102

Korean American Pastors Encouraged to Persevere

Pastors from across the nation gather for the annual National Korean American Pastors' Conference

BY RACHAEL LEE



Pastors from more than 40 different churches in 16 states and Canada gathered at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Pastors' Conference which took place at New Life Fellowship from May 15 to 18. (Photo courtesy of Daniel Mingook Kim)

"God has called you to his kingdom work. May you be encouraged. Stay the course. Don't give up. Be tenacious."

Such were the words of encouragement given by Eugene Cho, lead pastor of Quest Church in Seattle, to a group of more than 50 Korean American pastors gathered at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Pastors' Conference (NKAPC), which took place from May 15 to 18 at New Life Fellowship in Bothell, WA.

Encouraging pastors to persevere and stay faithful in their respective ministries was one of the main aims for this year's conference, according to David Larry Kim, the lead pastor of Harvest (the English ministr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Orlando) and one of the organizers of the annual conference.

This is the second year that the NKAPC has been organized primarily by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pastors, and last year's conference had mostly focused on the topic of ministering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For this year's conference, we wanted to broaden the focus to pastoral ministry in general. We wanted to help pastors across the spectrum: for younger pastors to not only be equipped with sound theology and ministry skills—which seminaries emphasize—but to understand the heart of a pastor and the heart of ministry as well," said Kim.

"We also want to help those who are already in ministry to be able to stay in the game for the long run by helping them to see potential pitfalls along the way and to foster relationships that would provide support and encouragement," he added.

Speakers Benjamin Shin, the director of the Asian American Doctor of Ministry cohort at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Min Chung, the lead pastor of Covenant Fellowship Church in Champaign-Urbana, IL; and Eugene Cho encouraged pastors in their respective sessions and reminded them to have the right motivations and perspectives on ministry.

Shin, who spoke during the first two sessions of the conference, encouraged pastors to remember the motivation for ministry – faithfulness – and the means for ministry – grace. Though pastors may be weary from the challenges and failures of ministry, Shin reminded them that real success in God's perspective i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world's.

"Real success, in God's eyes, for ministry is based on faithfulness to his call and his ways," Shin said, rather than "worldly success or ambition such as fame, fortune, numbers, or status."

In fact, failure and hardships in life and in ministry are used by God to refine and strengthen those who are going through them, Shin said.

"If you are facing a hard time right now, the Lord is doing a work for you, to refine you, and to cause you to depend on only one person, and it's not yourself. It's God Almighty."

Speakers also reminded the pastors of God's grace, and that that alone qualifies them for and sustains them in ministry.



(From left to right: Min Chung, Benjamin Shin, Eugene Cho) Speakers at the conference encouraged pastors to remain faithful in their ministries. (Photos courtesy of Daniel Mingook Kim)

"God's ability to use us is not contingent on our abilities or our degrees or our significance," said Cho. "This is good news, especially in a culture today where even among church leaders, we struggle with our security, insecurity, definitions of success or significance. We have to understand and rest in this grace – that God can use anyone and everyone,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ir churches, or their degrees, you fill in the blanks."

Meanwhile, David Larry Kim said that he hopes this annual conference for Korean American pastors would continue to serve as a space of connection and learning.

"There are both unique and not-so-unique challenges that people serving in Korean-American churches face," Kim said. "This conference serves to provide a space for learning, discussion, inspiration and envisioning to help those serving in such churches."

Pastors who attended this year's conference represented 47 churches in 16 states and Canada, mostly from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CUSA).

The NKAPC is co-sponsored by the PCUSA's Racial and Ethnic Ministries and the National Coalition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Caucasian Congregants Set Out to Learn the Korean Culture of Senior Pastor

BY ANDERSON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en congregants of Advent Lutheran Church in LaGrange, GA, will be going on a 10-day mission trip to South Korea with their senior pastor, Rev. Min Chan Park, in September.

Park began serving at Advent Lutheran Church, which is comprised mostly of white congregants, seven years ago. Since then, members of the church have set out to try new and diverse challenges, and many of the growing Korean population in the surrounding area have also become new additions to the church in recent years.

Two years ago, a few of the members suggested an idea to Park: to visit South Korea — the home country of the church's senior pastor — and to learn what Christianity and the church is like there. Since then, Park and the mission team have been preparing and praying for the trip, and Park has also been teaching and introducing the history, as well as the current situation, of Christianity in South Korea to the team.

The mission team will be in South Korea from September 12 to 22, beginning their trip in Busan. The team will visit various churches and take a tour around historical Christian landmarks as well.

"This July, it will have been seven years since I have served at an American church," said Park. "I'm happy and thankful that, before the historic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in October, I will be able to visit and introduce Korea to the members of our congregation."

'Reclaiming' the Story and Legacy of Kye Yong Kim, Founder of Young Nak

Korean American ministry leaders aim to help rebuild healthy congregations by sharing the story of a faith leader

BY RACHAEL LEE

A team of Korean American leaders in ministry are aiming to "reclaim" and share the story of a Korean American pastor who they believe modeled the faith through his life and death.

Called "A Triple Immigrant: Rev. Kye Yong Kim's Spiritual Legacy," the project will spotlight the life of Kye Yong Kim, the founding pasto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YNPC) in Los Angeles, who is also known for passing away during his last trip to North Korea.

The project is being spearheaded by Paul Yang, the senior pastor of Pilgrim Church in New Jersey and the project committee chair; Michael Lee, the senior pastor of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YNCC) and the vice chair of the committee; Kwang Ja Park, the former director of education at YNPC; and Young Lee Hertig,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Innovative Space for Asian American Christianity (ISAAC) and the project director.

"I was so influenced by his leadership and character, that even today I sometimes ask myself, 'If Rev. Kim was in my position, what would he do?'" Yang, who previously served at Young Nak as its first English ministry pastor when Kim was the senior pastor, said at a project launching meeting hosted by YNCC on May 19. YNCC is the independent English congregation that emerged from YNPC.

"I really want to share his legacy with as many people as possible, and writing a book would be the best way," Yang added.

Indeed, the aim of the project is to interview those who have had firsthand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with Kim, and publish a book that highlights aspects of Kim's life, character, and impact, as well as lessons from his life that ministers could apply in today's context.

The idea came about from a student named Jonathan Hong who participated in an ISAAC summer internship, said Hertig at the launching meeting, which was attended mostly by members of YNCC.

Hong, who is also a member of YNCC, was placed as an intern at West Angeles Church of God in Christ through ISAAC. During the internship, the leaders at West Angeles shared the history of the church. After that experience, Hong expressed to Hertig that he wished such resources on the history of his own church were also available. Though there are resources available in the Young Nak library, all of them are in Korean, Hertig said.



Paul Yang (center), the chair of the project committee, shared the ways that he was impacted by Kye Yong Kim, the founde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at the project launching meeting on May 19.

"As part of the younger generation, I think I can speak for a majority of my generation when I say that we long to learn from people who are living by faith," Hong, whose grandfather Soon Kun Hong was a founding elder of YNPC, said during the internship.

"Hearing about the lives of people who have come before us, who have prayed for the future faith of the Church, and who have lived the faith that the Bible teaches, would not only encourage us as believers in this world but challenge us to remember the faithfulness of God," he said.

Documenting and disseminating Kim's story will not only allow the members of Young Nak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church roots, but will also provide Korean Americans in ministry an opportunity to learn from someone who has come before and lived out his faith from a similar ministry context, according to Hertig, who added that she hopes this resource will be made available in seminaries as well.

Kim as a person has lived a life that could serve as exemplary for any Christian, she and the other project committee members said. He had "foresight" and was "inclusive," as Hertig put it, to hire a woman on a pastoral role at that time, and to initiate an English-speaking ministry at a Korean immigrant church. He was "a trailblazer," and someone who gave his life living out his faith, she added.

"It's time to reclaim this amazing, inspiring founder's story and transmit it to the younger generation," said Hertig. "They have a yearning to know."

"This is not just about the past, but also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 she added.

The project committee aims to have the book published in 2018.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Most Americans Concerned that Morality Is Declining, According to LifeWay Study

Though most Americans express concern that morality is on the decline in the country, most also don't believe that laws are an effective way to help preserve morality, according to a LifeWay Research study published earlier this month.

The study found that a significant majority — 81 percent — said they are "concerned about declining moral behavior in our nation," and about half (51 percent) of Americans believe that too many laws related to morality have been taken away.

But 63 percent said that "implementing laws to encourage people to act morally is not effective."

Indeed, when asked which factor is most important in deciding whether something is moral or immoral, only 7 percent said "whether there is a law against" the action is the most important.

The largest proportion of survey participants (48 percent) said that there were no specific factors determining morality for them, and that "what is right and wrong does not change."

Twenty percent said "whether a person gets hur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moral standards.

By what or whom are Americans most influenced in their moral standards?

The largest proportion (39 percent) said their parents were most influential in setting their moral standards.

A little more than a quarter (26 percent) pointed to religious beliefs as being most influential in shaping their internal moral compass.

Not surprisingly, evangelical Americans were most likely to cite their faith (64 percent), even more so than their parents (22 percent).

"For those with evangelical beliefs, the Bible is the ultimate authority," said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It trumps everything. So it's going to be the source for how they determine right from wrong."

"However, for Americans there is no most influential source of morality embraced by a majority."

Tennessee Sued by Same-Sex Couples for 'Natural and Ordinary Meaning' Law

The newly passed law may hinder same-sex couples' parental rights, plaintiffs say

Four same-sex female couples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tate of Tennessee, arguing that a law recently passed in the state will hinder their rights as parents.

The law in question was signed by Tennessee Governor Bill Haslam on May 5, which states that "undefined words" in state laws "shall be given their natural and ordinary meaning, without forced or subtle construction that would limit or extend the meaning of the language, except when a contrary intention is clearly manifest."

The couples, all of whom are expecting children this year, argue that the newly signed law may prevent them from fully exercising their parental rights, as the state law includes language that uses the terms, "husband" and "wife."



Tennessee's State Capitol in Nashville, Tennessee, pictured in April 2010. (Photo: Rob Shenk / Flickr / CC)

For instance, one Tennessee law states that a "child born to a married woman as a result of artificial insemination, with consent of the married woman's husband, is deemed to be the legitimate child of the husband and wife."

An appeals court in Tennessee had ruled recently in a separate case that a lesbian woman named Erica Witt has parental rights to the child that was birthed by her previous wife under that law, as the court interpreted the term "husband" to include the female spouse of a "wife."

"The legislature's use of the words 'husband' and 'wife' merely reflects the fact that only opposite-sex marriages were recognized in Tennessee when the statute was enacted in 1977," wrote Tennessee's Attorney General Herbert Slatery in a memorandum. After the Supreme Court legalized same-sex marriages in 2015, "that is no longer the case," Slatery added.

Though the appeals court had previously ruled against Witt, the court reversed the ruling in May 2016.

Haslam's bill requiring state laws' terminology to be interpreted in their "natural and ordinary meaning" may complicate these issues, the plaintiffs argue.

Though backers of the law said that the law does not have to do with homosexuality or same-sex couples, Julia Tate-Keith, the attorney representing the four couples, argued that the law "absolutely is about denying gay people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Reuters reports.

David Fowler, president of the Family Action Council of Tennessee, said that these issues have arisen because "our law has abandoned the natural meaning of marriage," as he told World Magazine.

"The problem is that giving a word a meaning contrary to its natural meaning requires us to give a new meaning to all the words associated with that word," Fowler said.

The couples who filed the lawsuit include Elizabeth and Heather Broadaway, Kathrine and Emilie Guthrie, Charitey and Heather Mackenzie, and Crystal Dawn and Terra Mears.

A hearing date has not yet been scheduled, Tate-Keith told reporters.

Texas Governor Signs Bill to Protect Pastors and Their Sermons from Government Subpoenas

Bill-signing ceremony at a church drew some protests, according to reports

At a ceremony which took place at a church on Sunday, Texas Governor Greg Abbott signed a bill into law that prohibits the government from compelling clergy to testify regarding their sermons, or to produce copies of their sermons for a civi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

Senate Bill 24, also known as the "Sermon Safeguard Bill," came about after the city of Houston issued subpoenas to five pastors when they tried to repeal the Houston Equal Rights Ordinance (HERO), a city ordinance which granted access to public facilitie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The city required the pastors to submit "all speeches, presentations or sermons related to HERO, the Petition, Mayor Annise Parker, homosexuality or gender identity prepared by, delivered by, revised by or approved" by them or in their possession.

"You are freedom fighters," said Abbott at the bill-signing which took place at Grace Community Church in Woodlands, one of the churches to which a subpoena was issued. "You realized that when subpoenas were issued on your own pastor, when you had to fight against your own government right here in Houston for your freedom — your freedom of religion."



Texas Governor Greg Abbott at FreePac in October of 2012. (Photo: Gage Skidmore / Flickr / CC)

"Texas law will now be your strength and your sword and your shield," Abbott went on. "You will be shielded from any effort by any other government official in any other part of the state of Texas from having subpoenas to try to pry into what you're doing here in your churches."

Texas Lt. Governor Dan Patrick, who attended the ceremony with Abbott, said the new law "will give pastors critical protection from forced testimony and shield sermons from government subpoena power."

Meanwhile, the bill-signing at Grace Community Church drew some protests, according to reports.

"What we witnessed today was Dan Patrick and Greg Abbott giving active sermons before the signing of a bill," Joshua Douglas told KHOU. "We had strong conflict with the choice of this venue. We felt it was infringing on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 434. 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